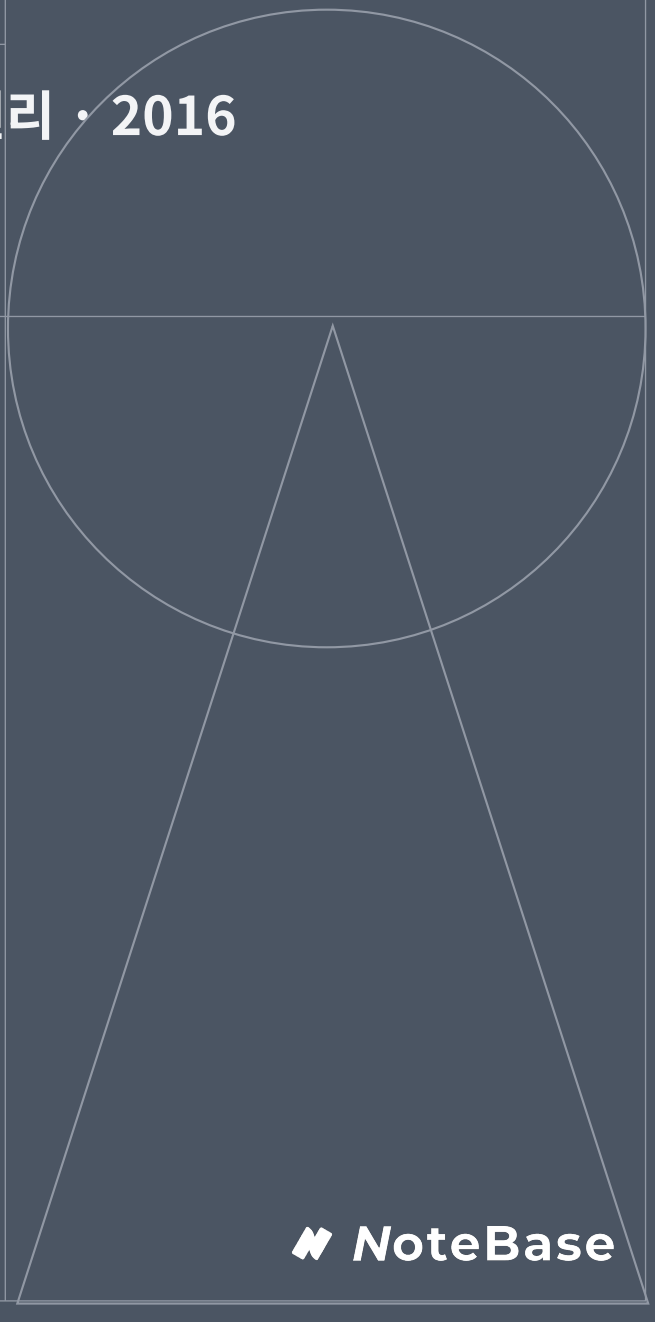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6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6

문 1. (주)한국의 2016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6년 매출액은?

◯ 기초상품재고 ₩2,000
◯ 당기매입액 ₩10,000
◯ 기말상품재고 ₩4,000
◯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이익률 10%

① ₩6,600
② ₩7,200
③ ₩8,000
④ ₩8,8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 8,000원에 **원가 기준 이익률 10%**를 적용한 이익 800원을 더하므로, 매출액은 8,800원이다.

계산 과정

1. 매출원가 계산: 기초상품재고와 당기매입액을 합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가 된다. 여기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기말상품재고를 차감**하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구해진다. 따라서 2016년 매출원가는 2,000 + 10,000 − 4,000 = 8,000원이다.

2. 매출총이익 계산: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주어진 10%는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가산하는 비율**이므로, 매출총이익은 8,000 × 10% = 800원이다.

3. 매출액 계산: 매출액은 판매된 상품의 원가에 매출총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8,000 + 800 = 8,8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주)한국의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 (주)한국의 조정 전 당좌예금 계정 잔액 ₩12,200
◯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상 잔액 ₩12,500
◯ (주)한국에서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
◯ (주)한국에서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된 예금 ₩7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500
◯ 타회사가 부담할 수수료를
(주)한국에 전가한 은행의 오류 ₩2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자비용 ₩300

① ₩10,700
② ₩11,400
③ ₩13,400
④ ₩14,1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회사 장부 잔액에서 **미기록 은행수수료와 이자비용**을 차감하면 12,200 − 500 − 300 = 11,4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회사 장부 기준: 조정 전 당좌예금 잔액은 12,200원이다. 은행수수료 500원과 이자비용 300원은 은행에서 예금을 차감했지만 회사가 아직 회계처리하지 않은 항목이므로, **회사 장부의 당좌예금도 감소**시켜야 한다. 조정 후 장부 잔액은 12,200 − 500 − 300 = 11,400원이다.

미인출 수표와 미기록 예금: 발행한 수표 2,000원은 회사가 이미 당좌예금에서 차감했지만 은행은 아직 인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은행 잔액에서 차감한다. 예금 700원은 회사가 이미 입금 처리했지만 은행이 아직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은행 잔액에 가산한다. 두 항목은 **회사 장부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어 회사 잔액을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은행의 오류: 타회사가 부담할 수수료 200원을 (주)한국에 잘못 전가하여 은행 잔액이 그만큼 적게 표시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은행 잔액에 200원을 가산**한다. 회사 장부의 오류가 아니므로 회사 잔액에서는 조정하지 않는다.

잔액 대조: 은행 예금잔액증명서의 12,500원을 조정하면 12,500 − 2,000 + 700 + 200 = 11,400원이다. 회사 장부를 조정한 금액과 일치하므로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11,400원이며, ②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의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현금기준 회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은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에서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기능별 분류법만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 반드시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각각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따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발생기준은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의 발생에 따라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을 인식하는 기준이다.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기준으로 작성하지만, **현금흐름정보는 제외**된다. 현금흐름표는 실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 주므로, 모든 재무제표에 발생기준만 사용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② X: 비용은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류한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처럼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라 묶고, 기능별 분류법은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처럼 기업 내 기능에 따라 묶는다.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의 특징이지만, 이 방법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③ X: 항목의 통합과 구분 표시에는 **중요성**을 고려한다. 유사한 항목은 종류별로 묶되, 중요한 각 항목군은 별도로 표시한다.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도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항목은 반드시 통합하고 상이한 항목은 반드시 구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O: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하여 순액만 표시하는 것이다. 상계하면 개별 자산·부채나 수익·비용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의 내용과 재무상태·재무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한다.

NoteBase

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③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고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④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중립적 정보가 '목적이 없고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라는 설명은 잘못이다. **중립성**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향이 없다는 뜻이며, 중립적인 정보도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은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둘 다 있으면 이러한 능력을 갖는다. 모든 이용자의 결정이 실제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이용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목적적합할 수 있다.

② O: 예측가치는 재무정보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갖는 특성이다. 정보 자체가 미래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올해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내년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다면, 올해 매출액 정보도 예측가치를 갖는다.

③ X: 중립적 서술에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상의 편향이 없어야 한다는 앞부분은 타당하다. 그러나 중립성을 '목적이 없고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설명한 뒷부분은 잘못이다. 중립성이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가 정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받아들이도록 **정보를 의도적으로 강조·축소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것**이다. 편향 없이 제공된 정보가 이용자의 판단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O: 완전한 서술은 이용자가 해당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다. 단순히 금액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과 설명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을 서술할 때에는 자산의 성격과 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이 역사적 원가인지 공정가치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NoteBase

문 5.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구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일괄구입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따라 배분한다.

② 토지의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소유권 이전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기계장치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시운전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처음부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했다면,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철거는 신축 건물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효익을 제공하므로 취득원가를 구분해야 한다. 일괄구입가격은 취득 시점의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즉, 전체 공정가액 중 각 자산의 공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구입가격을 나누어 각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② O: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은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직접 필요한 지출**이다. 따라서 토지 매입대금에 더하여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 O: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뿐 아니라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필요한 원가도 포함한다. 기계장치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시운전비**는 이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X: 취득 당시부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목적이었다면, 구 건물의 철거는 토지를 건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준비 작업이다. 따라서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구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①의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취득 시점부터 기존 건물을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NoteBase

문 6. 회계 기말에 행할 결산수정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기중에 사용된 소모품 금액을 소모품 계정으로부터 소모품비 계정으로 대체한다.

② 거래 중인 회사의 부도로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다.

③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④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은 **대손 확정 시의 거래 기록**이다. 결산수정은 기말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조정**하는 처리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인 소모품 계정에 기록했다면, 기말에는 그중 **당기에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모품비를 차변에, 소모품을 대변에 기록하여 사용액은 당기 비용에 반영하고 미사용액만 자산으로 남긴다.

② X: 부도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매출채권을 대변에 기록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거한다. 이는 **대손 확정 시 기록하는 거래**이며, 처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결산수정 사항은 기말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추정하고, 기존 잔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여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다.

③ O: 건물의 취득원가 중 잔존가치를 제외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한다. 기말에 **당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결산수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당기 비용이 인식되고 건물의 장부금액이 감소한다.

④ O: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할 때마다 상품의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기말 재고조사 후 매출원가를 확정**한다. 기초상품액과 당기순매입액을 합한 판매가능상품액에서 기말상품액을 차감하여 당기 매출원가를 산정한다.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기말 재고자산 잔액을 반영하는 처리는 결산수정 사항이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5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5,000이며, 연수합계법에 의해 월할로 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이 이 기계장치를 2016년 10월 1일 ₩43,000에 처분한 경우 기계장치 처분손익은? (단, (주)한국은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① 처분손실 ₩2,000

② 처분이익 ₩2,000

③ 처분손실 ₩3,000

④ 처분이익 ₩3,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취득 후 1년 단위**로 낮아지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35,000원이다. 처분 직전 장부금액 45,000원보다 처분금액이 2,000원 적으므로 **처분손실 2,000원**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감가상각대상금액과 상각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80,000 − 5,000 = 75,000원이고, 내용연수의 합은 5 + 4 + 3 + 2 + 1 = 15이다.
연수합계법은 이 금액에 남은 내용연수의 비율을 곱하므로, 첫 1년의 상각률은 $\frac{5}{15}$, 다음 1년의 상각률은 $\frac{4}{15}$이다.

2. 취득 후 첫 12개월의 감가상각비: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첫 번째 상각률을 적용한다. **달력상 연도가 바뀌어도 취득 후 첫 1년이 끝나기 전에는 같은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75,000 \times \frac{5}{15} = 25,000$원이다.

3. 이후 6개월의 감가상각비: 2016년 4월 1일부터 처분 직전인 9월 30일까지는 두 번째 상각률을 적용한다. 두 번째 1년의 감가상각비 중 **사용한 6개월분만 월할 계산**하므로 $75,000 \times \frac{4}{15} \times \frac{6}{12} = 10,000$원이다.

4. 처분 직전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0 + 10,000 = 35,000원이다. 원가모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므로,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80,000 − 35,000 = 45,000원이다.

5. 처분손익: 처분금액과 처분 직전 장부금액을 비교하면 43,000 − 45,000 = −2,000원이다. **장부금액보다 적게 회수**했으므로 처분손실 2,000원이 발생하며, 이는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평균총자산액 ₩3,000
◯ 부채비율 (= 부채/자본) 200%
◯ 매출액순이익률 20%
◯ 총자산회전율 (평균총자산 기준) 0.5회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총자산회전율 0.5회에 평균총자산 3,000원을 곱하면 매출액은 1,500원이다. 이 매출액의 **20%가 당기순이익**이므로 300원이다.

계산 과정

매출액 계산: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평균총자산액이다. 문제에서 **평균총자산 기준**의 회전율을 제시했으므로, 매출액은 3,000 × 0.5 = 1,500원이다.

부채비율의 역할: 부채비율 200%는 부채가 자본의 2배라는 뜻이다. 이 문제에서는 평균총자산과 총자산회전율로 매출액을 바로 구할 수 있으므로, 부채와 자본을 나누어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당기순이익 계산: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매출액×100으로 나타내는 비율이다. 20%는 **매출액 100원당 당기순이익이 20원**이라는 뜻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500 × 0.2 = 300원이다.

계산한 당기순이익 30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할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율은 0보다 크다)

① 할증발행 시 상각액은 매기 감소한다.

② 할인발행 시 이자비용은 매기 증가한다.

③ 할인발행 시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④ 할증발행 시 이자비용은 매기 감소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할증발행 시에는 사채의 장부금액이 줄어 이자비용도 매기 감소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일정하므로, 지급이자와 이자비용의 차이인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사채 장부금액에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구한다. 현금 지급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기 일정하며, 이자비용과 현금 지급이자의 차이가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이다. 이자율이 0보다 크므로 장부금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이자비용도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① X: 할증발행한 사채는 장부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며, 할증발행차금을 상각할 때마다 장부금액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은 감소하지만 현금 지급이자는 일정하다.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현금 지급이자 − 이자비용'이므로 **매기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② O: 할인발행한 사채는 장부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으며,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장부금액에 더하므로 장부금액이 매기 증가한다. 따라서 같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해도 **기초 장부금액이 커지므로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③ O: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 − 현금 지급이자**이다. 할인발행 시에는 이자비용이 매기 증가하는 반면 현금 지급이자는 일정하므로, 두 금액의 차이인 상각액도 매기 증가한다.

④ O: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사채 장부금액에서 차감된다. 그 결과 **기초 장부금액이 매기 감소**하며, 여기에 일정한 양의 유효이자율을 곱한 이자비용도 매기 감소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내부보고 목적으로 현금기준에 따라 순이익을 산출한 후 이를 발생기준으로 수정하여 외부에 공시하고 있다. (주)한국의 현금기준 순이익이 ₩55,000일 경우,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발생기준 순이익은? (단, 법인세효과는 무시한다)

<재무상태표>	기초금액	기말금액
매출채권	₩15,000	₩20,000
매입채무	₩25,000	₩32,000
미수수익	₩10,000	₩8,000

<포괄손익계산서>	당기발생금액
감가상각비	₩3,000

① ₩48,000
② ₩54,000
③ ₩56,000
④ ₩59,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발생기준은 **현금 수수 시점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손익을 인식한다. 채권·채무의 기초·기말 차이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현금기준 순이익보다 7,000원이 줄어, 발생기준 순이익은 48,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현금기준은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나가면 비용으로 반영하지만, 발생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해당 발생 기간에 인식한다. 따라서 현금기준 순이익 55,000원에 수익·비용의 인식 시점 차이를 조정한다. 법인세효과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무시한다.

매출채권: 기초 15,000원에서 기말 20,000원으로 5,000원 증가했다. 매출채권은 매출로 인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기말 미수금은 더하고 당기에 회수한 기초 매출채권은 빼므로, 순액으로 **수익과 순이익에 5,000원을 가산**한다.

매입채무: 기초 25,000원에서 기말 32,000원으로 7,000원 증가했다. 기말에 남은 미지급 매입대금은 반영하고, 당기에 지급한 기초 매입채무는 당기 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에서는 순액으로 발생기준 비용이 현금기준보다 7,000원 많아지므로, **순이익에서 7,000원을 차감**한다.

미수수익: 기초 10,000원에서 기말 8,000원으로 2,000원 감소했다. 기말 미수수익 8,000원은 당기에 발생했으므로 수익에 더하고, 기초 미수수익 10,000원은 전기에 발생한 수익이므로 당기 현금수입에서 제외한다. 순액으로 **수익과 순이익에서 2,000원을 차감**한다.

감가상각비: 당기 발생액은 3,000원이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사용 기간에 걸쳐 배분한 비용이다. **당기 현금 지출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현금기준 순이익에서 3,000원을 차감한다.

발생기준 순이익: 수익 조정액은 5,000 − 2,000 = 3,000원이고, 추가로 반영할 비용은 7,000 + 3,000 = 10,000원이다. 따라서 55,000 + 3,000 − 10,000 = 48,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③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각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되기도 하지만, 기준제정기관은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할 때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투자자와 채권자는 재무보고서 외에도 경제 상황과 산업 전망 등 다른 원천의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무보고서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자산에서 앞으로 얻을 현금흐름처럼 보고 시점에 확정할 수 없는 사항도 측정해야 하므로, 모든 내용을 정확한 확정값으로 서술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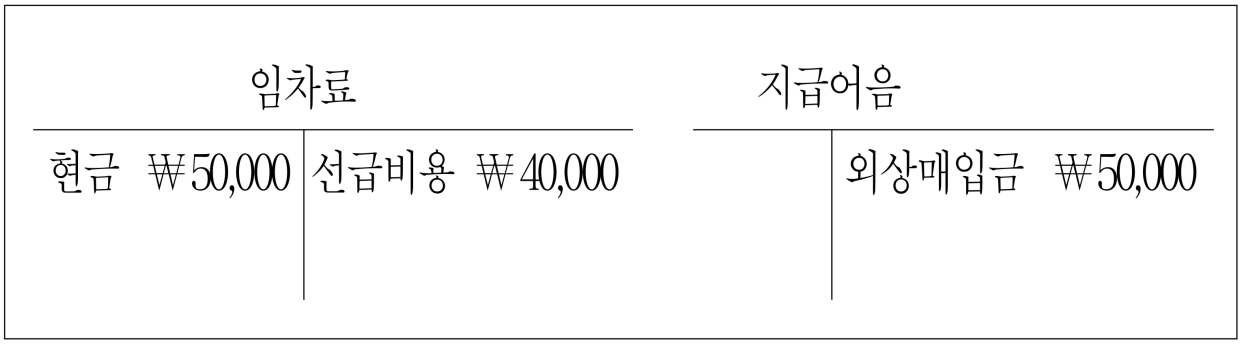
② X: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용자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 전망, 정치적 사건과 환경, 산업 및 기업 전망 등 다른 원천의 관련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

③ O: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가 이러한 추정의 기초가 된다. 보고서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④ O: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수요와 욕구는 서로 다르고 상충할 수도 있다. 기준제정기관은 각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보다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일반목적재무보고는 주요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춘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주)한국의 임차료와 지급어음의 장부마감 전 계정별 원장이다. 장부 마감 시 각 계정별 원장에 기입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차료		지급어음	
현금 ₩50,000	선급비용 ₩40,000		외상매입금 ₩50,000

① 임차료계정 원장의 차변에 차기이월 ₩10,000으로 마감한다.

② 임차료계정 원장의 대변에 집합손익 ₩10,000으로 마감한다.

③ 지급어음계정 원장의 대변에 차기이월 ₩50,000으로 마감한다.

④ 지급어음계정 원장의 차변에 집합손익 ₩50,000으로 마감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임차료의 차변잔액 10,000원은 당기 비용이므로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잔액을 없애려면 임차료 원장의 **대변에 '집합손익 10,000원'**을 기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원장의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 임차료는 차변 50,000원에서 대변 40,000원을 뺀 10,000원이 차변잔액으로 남아 있다. 대변의 선급비용 40,000원은 미리 지급한 금액 중 아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부분을 자산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남은 10,000원이 당기 임차료이다. 지급어음은 대변에만 50,000원이 있어 대변잔액이 50,000원이다.

① X: 임차료는 비용계정이므로 잔액을 다음 기로 이월하지 않고 **집합손익으로 대체**한다. 차변잔액 10,000원을 없애기 위해 임차료 원장의 대변에 '집합손익 10,000원'을 기입해야 한다.

② O: 비용을 집합손익으로 모으는 마감분개는 차변 '집합손익 10,000원', 대변 '임차료 10,000원'이다. 따라서 임차료 원장에는 **대변에 상대계정인 집합손익**을 적고 10,000원을 기입한다. 이로써 임차료의 차변·대변 합계가 각각 50,000원이 되어 잔액이 없어진다.

③ X: 지급어음은 부채계정이므로 기말에 남은 채무 50,000원을 다음 기로 이월한다. 다만 대변잔액을 가진 계정을 마감할 때는 반대쪽인 **차변에 '차기이월 50,000원'**을 기입하여 양쪽 합계를 맞춘다. 다음 기에는 이 잔액을 대변에 '전기이월'로 기입한다.

④ X: 지급어음은 당기 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이 아니라 부채이므로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차변에 기입하는 위치는 맞지만, 적요는 집합손익이 아니라 '차기이월'이며 금액은 50,000원이다.

NoteBase

문 13. (주)대한은 (주)민국에게 판매 위탁한 상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상품(원가 ₩10,000)을 기말재고자산에 판매가(₩15,000)로 포함시켰다. 이로 인한 당기와 차기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당기에만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② 당기에만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③ 순이익이 당기에는 과대, 차기에는 과소계상된다.

④ 순이익이 당기에는 과소, 차기에는 과대계상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판매 위탁상품은 대한의 재고에 원가 10,000원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판매가로 평가하면 기말재고가 5,000원 과대계상된다. 이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당기에는 줄고 차기에는 늘어나, 순이익은 **당기에는 과대, 차기에는 과소계상**된다.

계산 과정

재고 평가 오류액: 민국에게 판매를 위탁했더라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대한의 재고자산이다. 따라서 재고에 포함한 것 자체는 맞지만,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 10,000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실제 계상액은 15,000원이므로 기말재고 과대계상액은 15,000 − 10,000 = 5,000원이다.

당기 영향: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에 당기순매입액을 더한 뒤 기말재고자산을 빼서 구한다. 기말재고가 5,000원 크게 잡히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는 5,000원 작게 잡힌다. 다른 항목이 같을 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당기 순이익은 5,000원 과대계상**된다.

차기 영향: 당기 기말재고는 그대로 차기 기초재고가 된다. 이 오류의 영향만 비교하고 차기 기말재고는 올바르게 평가된다고 보면, 차기에는 기초재고가 5,000원 크게 잡혀 매출원가가 5,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차기 순이익은 5,000원 과소계상**된다.

순이익이 당기에는 과대계상되고 차기에는 과소계상되는 결과이므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행한 수정분개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전시산표 항목		수정분개 사항	
상품	₩100,000	기말상품재고액	₩300,000
매입	₩600,000		
소모품	₩200,000	소모품 기말재고액	₩50,000
소모품비	₩0		
임차료	₩100,000	기말 미경과 임차료	₩50,000
선급임차료	₩0		
감가상각비	₩0	당기 건물 감가상각비	₩100,000
감가상각누계액－건물	₩100,000		

① 차) 상품 ₩200,000 대) 매입 ₩600,000
　　매출원가 ₩400,000

② 차) 소모품비 ₩150,000 대) 소모품 ₩150,000

③ 차) 임차료 ₩50,000 대) 선급임차료 ₩50,000

④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1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미경과 임차료 50,000원은 **아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선급임차료**이다. 이미 임차료로 처리한 금액에서 이를 빼야 하므로, 차변에 선급임차료 50,000원, 대변에 임차료 50,000원을 기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초상품 100,000원과 당기매입 600,000원을 합한 판매가능상품 원가는 700,000원이다. 여기서 기말상품재고액 300,000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400,000원이다. 상품 계정은 기존 100,000원에서 30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차변에 차액 200,000원**을 기록한다. 따라서 차변에 상품 200,000원과 매출원가 400,000원, 대변에 매입 600,000원을 기록하는 분개가 성립한다.

② O: 소모품은 자산으로 200,000원이 기록되어 있으나 기말에 남은 금액은 5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사용액은 200,000 − 50,000 = 150,000원이며,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변에 소모품비 150,000원을 기록하여 비용을 늘리고, 대변에 소모품 150,000원을 기록하여 자산을 줄이면 소모품 잔액은 50,000원이 된다.

③ X: 수정 전 임차료 100,000원에는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기말미경과액 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액은 당기 비용에서 제외하고 자산으로 남겨야 하므로, **차변에 선급임차료 50,000원, 대변에 임차료 50,000원**을 기록한다. 수정 후 임차료와 선급임차료는 각각 50,000원이 된다. 선지의 분개는 임차료를 늘리고 선급임차료를 줄이므로 필요한 수정 방향과 반대이다.

④ O: 당기 건물 감가상각비 100,000원은 당기에 새로 인식할 비용이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000원을 기록하고, 건물의 취득원가를 직접 줄이는 대신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건물 100,000원**을 기록한다. 기존 감가상각누계액 100,000원은 이전까지 누적된 금액이므로, 수정 후 누계액은 200,000원이 된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주)한국의 2016년 거래 자료이다. 2016년 말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잔액은? (단, 매입거래는 모두 외상거래이다)

◯ 기초매입채무 ₩8,000
◯ 당기 중 매입채무 현금지급액 ₩35,000
◯ 기초상품재고 ₩12,000
◯ 기말상품재고 ₩11,000
◯ 당기매출액 ₩50,000
◯ 매출총이익 ₩10,000

① ₩12,000
② ₩13,000
③ ₩14,000
④ ₩15,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당기매입액은 매출원가와 재고 변동을 반영하면 39,000원이며, **전액 외상매입**이므로 매입채무를 늘린다. 기초매입채무 8,000원에 이를 더하고 현금지급액 35,000원을 빼면 기말매입채무는 **12,000원**이다.

계산 과정

매출원가 계산: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판매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당기매출액 50,000원에서 매출총이익 10,000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50,000 − 10,000 = 40,000원이다.

당기매입액 계산: 기초상품재고에 당기매입액을 더한 상품 중 기말에 남은 재고를 제외한 금액이 매출원가이다. 따라서 매출원가에서 기초상품재고를 빼고 기말상품재고를 더하면 당기매입액을 구할 수 있다. 당기매입액은 40,000 − 12,000 + 11,000 = 39,000원이다. 재고가 기초보다 1,000원 줄었으므로, **당기매입액은 매출원가보다 1,000원 적다**.

기말매입채무 계산: 매입채무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매입거래가 모두 외상거래**이므로 당기매입액 39,000원 전액이 매입채무를 증가시키고, 현금지급액 35,000원은 매입채무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2016년 말 매입채무 잔액은 8,000 + 39,000 − 35,000 = 12,000원이다.

계산된 기말매입채무 12,000원은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다음의 장부마감 전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기말 자본은? (단, 수익과 비용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익 합계	₩2,000,000	비용 합계	₩1,000,000
자본금	₩1,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이익잉여금	₩500,000	자기주식	₩100,000
감자차익	₩100,000	재평가잉여금	₩200,000

① ₩3,500,000

② ₩3,300,000

③ ₩3,200,000

④ ₩3,0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장부마감 시 **당기순이익 1,000,000원을 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 자기주식을 차감한 마감 전 자본 2,200,000원에 이를 더하면 기말 자본은 3,2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당기순이익 계산: 수익과 비용은 장부마감 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므로, **마감 전 이익잉여금에는 당기순이익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수익 2,000,000원에서 비용 1,000,000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1,000,000원이다.

2. 마감 전 자본 합계: 자본금 1,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500,000원, 이익잉여금 500,000원, 감자차익 100,000원,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은 자본에 더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며,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해당한다. 문제의 수익·비용에는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순이익과 별도로 자본에 포함한다. **자기주식 100,000원은 자본 차감 항목**이다. 금액을 만원 단위로 바꾸어 합산하면 100 + 50 + 50 + 10 + 20 − 10 = 220만원이다.

3. 기말 자본 계산: 장부마감으로 당기순이익 100만원이 이익잉여금에 더해지므로, 기말 자본은 220 + 100 = 320만원, 즉 3,200,000원이다.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2015년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주)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률전문가는 2015년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까지는 회사의 책임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2016년 말 현재 (주)한국에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 중이며, 법률전문가는 (주)한국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주)한국의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는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한다.

② 2015년의 경우 현재의 의무가 없고,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우발부채로 공시할 의무는 있다.

③ 2016년 말에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배상금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④ 만약 2016년 말에 배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공시할 의무는 있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우발부채는 원칙적으로 주석으로 공시하지만,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 의무가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인식한다.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반영한다.

② X: 2015년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비추어 현재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의무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선지에서 가정한 것처럼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우발부채 공시 의무도 없다**. 따라서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공시할 의무는 있다'를 '아주 낮으면 공시할 의무가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2016년 말에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있으므로, 현재의무와 자원 유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에 **배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요건**까지 충족하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④ O: 2016년 말에 현재의무가 있고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더라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지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을 때 적용하는 공시 면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주)대한은 2014년 1월 1일에 도로건설계약(공사기간: 2014.1.1 ~ 2016.12.31)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총계약수익은 ₩300,000이며, 이 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총계약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었다. 당해 건설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건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계약원가	₩50,000	₩130,000	₩200,000

① 2014년의 계약진행률은 25%이다.

② 2016년의 계약수익은 ₩105,000이다.

③ 2015년까지의 누적계약진행률은 65%이다.

④ 2015년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65,000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15년 말까지의 누적계약이익은 65,000원이지만, 여기에는 2014년에 인식한 이익 2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15년 한 해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65,000 − 25,000 = 4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 200,000원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진행률에 총계약수익 300,000원을 곱하면 해당 연도 말까지 인식할 누적계약수익이 된다. **당기 금액은 당기 말 누적액에서 전기 말 누적액을 뺀 금액**이며, 계약이익은 계약수익에서 계약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① O: 2014년 누적계약원가는 50,000원이므로 진행률은 $\frac{50,000}{200,000} \times 100 = 25\%$이다. 계약 첫해이므로 2014년의 진행률과 2014년 말 누적진행률은 같다.

② O: 2015년 말까지의 누적계약수익은 $300,000 \times \frac{130,000}{200,000} = 195,000$원이다. 2016년 말에는 누적계약원가가 200,000원에 도달하여 진행률이 100%가 되므로 누적계약수익은 총계약수익인 300,000원이다. 따라서 **2016년에 인식할 계약수익**은 300,000 − 195,000 = 105,000원이다.

③ O: 표의 130,000원은 2015년 한 해의 원가가 아니라 **2015년 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이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누적계약진행률은 $\frac{130,000}{200,000} \times 100 = 65\%$이다.

④ X: 2015년 말 누적계약이익은 누적계약수익에서 누적계약원가를 뺀 195,000 − 130,000 = 65,000원이다. 그러나 2014년에도 계약수익 $300,000 \times \frac{50,000}{200,000} = 75,000$원과 계약이익 75,000 − 50,000 = 25,000원을 이미 인식하였다. 따라서 2015년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누적계약이익의 증가분**인 65,000 − 25,000 = 40,000원이다. 선지의 65,000원은 당기이익이 아니라 누적이익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2015년에 인식할 계약이익을 65,000원으로 제시한 ④이다.

NoteBase

문 19. 재무비율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주요 비율로 자기자본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이 사용된다.

② 총자산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유동성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유동비율, 당좌비율, 총자산이익률이 주요 지표이다.

④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자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구하며 그 비율이 낮은 경우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액순이익률에 총자산회전율을 곱하면 공통 항목인 매출액이 약분된다. 따라서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이익률**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기자본이익률은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순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이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지급능력 지표**이다. 수익성을 분석하는 주요 비율로는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있다.

② O: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중 순이익의 비중이고, 총자산회전율은 총자산이 매출액을 창출한 정도이다. 두 비율을 곱하면 **공통 항목인 매출액이 약분**되어 총자산이익률이 된다. 총자산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분모에는 같은 기준의 총자산을 사용하며, 아래 식에서는 평균총자산을 사용한다. 즉,
순이익매출액×매출액평균총자산=순이익평균총자산이다. 이는 자산의 수익성을 매출의 이익 창출 능력과 자산의 활용 정도로 나누어 설명하는 관계이다.

③ X: 유동성비율은 단기채무를 지급할 능력을 분석하는 지표이며,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당좌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와 비교한다. **총자산이익률은 유동성 지표가 아니라 수익성 지표**이므로 주요 유동성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X: 이자보상비율은 이자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자비용으로 계산하므로 산식과 측정 목적에 관한 설명은 맞다. 다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지급능력이 양호**하다. 예를 들어 3배라면 이자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벌었다는 뜻이므로, 1배인 경우보다 이자 지급의 여유가 크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에 1년 된 돼지 5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은 2016년 7월 1일에 1년 6개월 된 돼지 2마리와 새로 태어난 돼지 3마리를 매입하였다. 돼지의 일자별 마리당 순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동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2016년도 기말 재무상태표 상에 표시할 생물자산은? (단, 2016년 중 매각 등 감소된 돼지는 없다)

일자	내용	마리당 순공정가치
2016년 1월 1일	1년 된 돼지	₩8,000
2016년 7월 1일	1년 6개월 된 돼지	₩12,000
2016년 7월 1일	새로 태어난 돼지	₩3,000
2016년 12월 31일	6개월 된 돼지	₩5,000
2016년 12월 31일	2년 된 돼지	₩15,000

① ₩120,000

② ₩141,000

③ ₩150,000

④ ₩156,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생물자산은 **기말의 나이별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기말에는 2년 된 돼지 7마리와 6개월 된 돼지 3마리가 있으므로, 생물자산 장부금액은 105,000원 + 15,000원 = 1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평가 기준: 생물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에 드는 원가를 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기초 금액과 매입 당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하지 않고, **2016년 12월 31일 현재 나이별 마릿수에 해당 날짜의 마리당 순공정가치**를 곱한다.

2년 된 돼지: 1월 1일에 1년이었던 5마리는 연말에 2년이 된다. 7월 1일에 1년 6개월이었던 매입분 2마리도 6개월이 지나 연말에 2년이 된다. 감소한 돼지가 없으므로 총 5 + 2 = 7마리이며, 표의 12월 31일 2년 된 돼지의 순공정가치 15,000원을 적용하면 7마리 × 15,000원 = 105,000원이다.

6개월 된 돼지: 7월 1일에 새로 태어난 상태로 매입한 3마리는 연말에 6개월이 된다. 표의 12월 31일 6개월 된 돼지의 순공정가치 5,000원을 적용하면 3마리 × 5,000원 = 15,000원이다.

기말 생물자산: 두 집단의 평가액을 합하면 105,000원 + 15,000원 = 120,000원이며, 이는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